

소크라테스 9회 3점 홈런 ... KIA, 파죽의 5연승



KIA 타이거즈가 시즌 첫 잠실 원정에서 '난적' LG 트윈스를 상대로 쌍끌이 3연승을 장식했다.

KIA가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12-8 승리를 거두고, 5연승에 성공했다.

이번 시리즈 전까지 1위였던 LG와의 대결. KIA는 지난 28일 1차전에서 4시간 14분의 연장 혈투 끝에 4-3 승리를 가져왔다. 8회초 나온 이우성의 대타 홈런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11회초 이창진의 희생플라이로 연장전 승리를 쟁겼다.

29일에는 황대인의 투런포로 초반 기싸움을 펼친 KIA가 5-3으로 쫓긴 9회초 삼중도루로 김규성이 홈에 들어오면서 '도루 1위' LG의 허를 찔렀다.

마지막 대결에서 역전과 재역전의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졌다.

선취점은 KIA의 차지였다. 1사에서 고종욱이 2루타로 출루한 뒤 김선민의 1루 땅볼 때, 베이스 커버에 들어갔던 선발 투수 켈리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KIA가 득점에 성공했다.

2회말에는 LG가 웃었다. KIA 선발 이의리가 선두타자 문보경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민성과 박동원의 연속 안타로 1-1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홍창기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2가 됐다.

박찬호의 볼넷으로 시작한 3회 KIA가 다시 균형을 맞췄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던 박찬호가 김선민의 좌전안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2-2가 됐다.

선발 싸움에서는 LG 켈리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의리가 5회 선두타자 문성주를 중전안타로 내보냈다. 김현수를 우익수 플라이, 오스틴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오지환의 좌측 2루타로 2-3 재역전을 허용했다. 이어 볼넷이 나오자 KIA 불펜이 가동됐고, 이의리의 등판은 4.2이닝(102구) 6피안타 4볼넷 6탈삼진 3실점으로 끝났다.

켈리도 6회초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선민-최형우-황대인에게 3연속 볼넷을 허용한 뒤 소크라테스의 희생플라이로 3-3이 되자 LG가 투수를 박명근으로 교체했다. KIA는 이창진의 좌전안타로 다시 4-3의 리드를 잡았지만 6회말 승부가 뒤집혔다. 무사 2루에서 상대의 번트 타구를 포수 주효상이 바로 잡아 원아웃을 만들었고, 이어

난적 LG와 숨막히는 혈전 12-8 승 잠실 원정 스윙승

2루로 송구해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냈다.

하지만 김기훈이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2사 만루에 몰렸고, 오스틴의 타구를 쫓던 소크라테스가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이 글러브 맞고 빠졌다.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4-5. 7회초 KIA가 류지혁의 2루타와 고종욱의 적시타로 다시 5-5를 만들었다. 8회에는 KIA가 LG의 특급 불펜 정우영과 고우석을 상대로 3점을 만들었다.

소크라테스가 정우영을 상대로 2루타를 뽑으면서 2사 2루, 한승택의 타석에서 우익수 문성주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KIA가 득점에 성공했다. 박찬호의 중전안타가 이어지자 LG가 마무리 고우석을 투입했다. 류지혁이 고우석을 상대로 우측 2루타를 날려 8-5를 만들었다.

승부의 추가 KIA로 기운 것 같았지만 8회말이 쉽지 않았다.

전상현이 김기연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냈지만 박해민의 타구가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다. 홍창기의 중견수 플라이로 투아웃, 전상현이 연속 볼넷으로 흔들렸고 오스틴의 우전 안타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투수가 정해영으로 교체됐지만 오지환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으면서 8-8이 됐다.

원점에서 시작된 9회초, 김선민과 최형우가 연속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황대인의 타구가 3루수 넘어 떨어지면서 대주자 김규성이 홈에 들어왔다. 9-8에서 소크라테스의 시원한 한방이 나왔다. 소크라테스가 고우석의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넘기면서 한 번에 3타점을 올렸다.

12-8로 앞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기연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박해민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면서 투수가 임기영으로 교체됐다. 7구 승부 끝에 홍창기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임기영이 문성주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아 2루에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이어진 2사 1-3루, 서건창의 타구가 높게 뒀고 중견수 김호영이 공을 잡아 스윙승을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가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9-8로 앞선 9회초 무사 1-2루에서 스리런을 날린 뒤 동료들이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강인 ATM 가나...시메오네 감독 적극 나서

EPL 팀들도 영입에 큰 관심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허락 아래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마요르카) 영입전에 잠전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엘레보는 27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경쟁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마요르카 측에 영입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마요르카가 이강인이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며 제안을 쳐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강인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와 국가대표팀에서 물오른 기량을 뽐내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고 엘레보는 전했다.

양루트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르코 아센시오(레알 마드리드) 등과 라리가 4월의 선수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이강인의 주가가 오르면서 울버햄프턴·브라이턴 엔드 호브 엘버언-에스



이강인

턴 빌라 등 EPL 팀들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들 팀과 경쟁을 불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출혈도 감수하겠다는 기조를 시메오네 감독도 받아들이겠다고 엘레보

는 전했다. 구단이 이강인 영입을 다시 타진하기로 한 시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31라운드 맞대결이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1로 이겼지만, 이강인은 번뜩이는 활약을 보였다.

2개의 슈팅, 2차례 드리블 돌파를 선보였고 패스 성공률 81%를 기록했다. 상대 선수와 5차례 결합해 4차례 볼을 따내며 투지도 불태웠다.

공교롭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쿠팡플레이의 초청을 받아 오는 7월 맨체스터 시티와 국내 친선 경기를 치른다. 한국을 찾는 건 1903년 창단 후 처음이다.

엘레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방한 소식을 언급하며 "이강인의 영입으로 이어지는 단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라리가에서 11차례 우승한 '전통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도 바르셀로나(승점 76), 레알 마드리드(승점 65)에 이어 3위(19승 6무 6패-승점 63)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KIA, 2~4일 롯데와 홈경기 '미리 가린 날 시리즈'

어린이 팬들에 다양한 선물

KIA 타이거즈가 2-4일 진행되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미리 가린 날 시리즈'로 치른다.

KIA는 5일 어린이날에 앞서 어린이 팬들을 시구자로 초청하고,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등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2일에는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챔피언스 필드 투어를 한다. 투어에 참가하는 어린이 팬들은 선수단 훈련을 참관하고, 투수 윤영철과 함께 하는 팬 미팅&사인회에도 참석한다.

이날 승리기원 시구와 시타는 2023년 키즈클럽 회원인 손연우(11) 군과 서민성(11) 군이 각각 맡는다.

3일에는 '광주 교육 가족의 날' 행사가 진행돼 광주 지역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 4700명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이전선 광주시교육감이 시구를 하고 광주진흥고 야구부 신성중(3학년·외야수) 군이 시타를 맡

는다. 애국가와 주월초교 12명의 학생들이 부른다. 또 경기 전과 클리닝타임에는 각각 영찬중 댄스부 '클라임'과 경신여고 응원단 '카시오피아'가 공연을 펼친다.

4일에는 KIA 선수단이 '가린 날'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한국리틀야구연맹 장학금으로 선발된 손단아(12·광산리틀야구단)양이 이날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한다.

경기에 앞서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챔피언스 필드 투어와 앤더슨 팬미팅&사인회도 펼쳐진다.

KIA는 또 '미리 가린 날 시리즈'가 펼쳐지는 사흘 동안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상하복장 유기농 주스(11만개)를 선착순 증정한다. 4일에는 해태제과 '홈런볼' 4000개와 KBO가 선물하는 필통 20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드래곤즈, 충남아산FC 꺾고 연패 탈출

전남 드래곤즈가 충남아산FC를 2-1로 꺾고 연패에서 탈출했다.

전남은 지난 29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3 10라운드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임찬울과 프라나의 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앞서 4월 3경기에서 8득점으로 2승 1무를 기록했던 전남은 최근 원정 두 경기에서 화력이 식으면서 연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천상무에 1-2패를 기록한 뒤 안산 원정에서는 득점에 실패, 0-1로 2연패에 빠졌다.

전반 11분 플라나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달대 불운'에 울었던 전남이 전반 21분 선제골을 장식했다. 플라나가 왼발로 패스를 했고, 공을 쫓아 문전으로 진입한 임찬울이 골키퍼와의 1대 1상

황에서 오른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반 32분 전남이 페널티지역에서 두아르테에게 공을 뺏긴 뒤 슈팅까지 허용했다. 두아르테의 왼발에 전남 골대가 튕리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16분 전남이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임찬울의 선제골을 도왔던 플라나가 주인공이 됐다. 발디베아가 왼쪽에서 문전으로 공을 띄웠고, 플라나가 헤더를 시도했다. 바운드된 공이 그대로 충남아산 골대로 향하면서 2-1이 됐다.

전남은 이후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버티면서 연패를 끊고 승점 3점을 더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탁구, 만리장성 막혀 은메달 4개에 그쳐

한국 탁구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테너 탁구대회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잇따라 막혀 은메달만 4개를 따냈다.

장우진(국군체육부대·17위)은 2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링가오위안(10위·중국)과 폴셰트 접전 끝에 3-4(11-9 10-12 19-17 9-11 5-11 11-4 9-11)로 졌다.

장우진은 임종훈(한국거래소)과 짝을 지어 나선 남자 복식 결승에서도 중국의 링가오위안-린스

동 조에 0-3(6-11 3-11 1-11)으로 완패했다.

두 종목에서 모두 은메달을 따낸 장우진은 스타 컨테너 대회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장우진은 스타 컨테너보다 한 단계 낮은 컨테너 시리즈에서는 지난해 10월 무스카트(오만) 대회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다른 종목에서도 만리장성은 높기만 했다.

중국 출신으로 2020년 한국으로 귀화한 주천희(38위·삼성생명)가 여자 단식 결승까지 올랐으나 천싱통(6위·중국)에게 1-4(2-11 11-6 9-11 13-

15 5-11)로 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임종훈-신유빈(대한항공) 조가 링가오위안-천싱통 조에 2-3(11-7 11-9 9-11 6-11 8-11)으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해 역시 준우승했다.

스타 컨테너는 WTT 주관 대회 중 메이저 대회 격인 그랜드 스매시, 연말 왕중왕전인 파이널스, 단식만 치르는 대회인 챔피언스 다음으로 격이 높은 대회다.

한국 탁구는 스타 컨테너 복식에서는 여러 차례 우승 조를 배출했다. 그러나 단식에서는 아직 스타 컨테너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